

전문간호사의 전문직업성,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및 간호업무성과의 관계

김영순¹ · 박정숙²

부산대학교병원¹, 고신대학교 간호대학²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Clinical Decision Making Abilities, and Job Performance in Advanced Practice Nurses

Kim, Young Soon¹ · Park, Jung Suk²

¹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²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Purpose: To identify the exten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clinical decision making abilities and job performance of advanced practice nurses and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the variables **Methods:** Participants, selected by a convenience sampling method, were 135 advanced practice nurses working in 4 tertiary care general hospitals in 'B' Metropolitan City and in 1 tertiary care general hospital in 'J' city. Data collection was done from January 15 to February 28, 2013 using self-reporting questionnaires. **Results:** The average score for nursing professionalism of study participants was 81.19±7.56. for clinical decision making abilities, 140.42±9.62 and for job performance, 102.54±10.30. These averages are relatively hig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tent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the extent of clinical decision making abilities showed an intermediate level positive correlation ($r=.45, p<.001$).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tent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the extent of job performance was also an intermediate level positive correlation ($r=.42, p<.001$). The extent of clinical decision making abilities and the extent of job performance was an intermediate level positive correlation ($r=.41, p<.001$). **Conclusion:** Developing a program, which can improv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linical decision making abilities of nurse, is required to enhance their job performance.

Key Words: Advanced practice nurses, Nursing professionalism, Clinical decision making abilities, Job performance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구의 노령화, 질병이 만성화되어 건강관리에 대한 복잡성이 증가되었고 건강관리체계의 구조적 변화, 의료업무의 전문화가 이루어져 간호사의 역할 확

대와 더불어 전문간호 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Lee et al., 2003).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의료소비자들의 요구와 간호계 내에서도 전문직으로의 발전 요구가 증가하면서 전문간호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Cho, Cho, Kwon, Seo, & Baek, 2011).

전문간호사는 미국연방법에서는 주법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받은 간호사로서 서비스를 수행하고 규정에서 요구되는 훈

주요어: 전문간호사, 간호전문성,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간호업무성과

Corresponding author: Park, Jung Suk

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34 Amnam-dong, Seo-gu, Busan 602-703, Korea.
Tel: +82-51-990-6451, Fax: +82-51-990-3031, E-mail: cooler1978@kosin.ac.kr

투고일: 2013년 9월 10일 / **수정일:** 2013년 10월 11일 /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3일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련과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이고,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간호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특수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후 법적인 인정을 받고 상급실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이다(Kim & Moon, 2004).

우리나라는 2006년 전문간호사에 대한 자격 인정에 대한 규적이 제정되어 전문간호사 분야가 보건, 임상 및 아동 등 총 13개로 확대되었다(Cheong, 2009). 전문간호사의 역할은 전문가적 간호실무 제공자, 교육자, 연구자, 지도자, 저술자, 협동자이며 그 중에서 전문간호 실무와 환자교육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고(Cho et al., 2011), 전문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는 지도력과 관리능력, 비판적 사고, 임상 판단, 의사결정 등이 있다(Davis & Hughes, 1995).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이란 간호사가 환자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 문제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는 인지적 과정이다(Choi, 1997). 임상적 의사결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향 요인은 의사결정자의 교육수준과 경험이므로(Orme & Maggs, 1993) 전문간호사는 단순한 숙련을 통한 기술이 아니라 지식 기반 위에서 스스로 판단, 결정하여 환자간호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답해야 하며, 또한 간호경험, 지식, 변화되는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 요구된다(Moon, 2004). 전문직업성이란 전문직이나 전문직인을 특징짓는 행위, 목표 또는 질을 의미한다(Baek & Kim-Godwin, 2007). 한국의 간호직은 교육제도, 전문직 단체의 설립, 면허제도, 윤리강령선포를 통해 전문직업성을 확보 해오고 있다(Choo, 2001). 간호사의 전문직업성 향상은 간호업무수행, 직무만족의 향상 및 재직의도를 증가시킨다(Kwon, Chu, & Kim, 2009).

간호업무성과란 간호사가 간호대상자인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함에 있어 요구되어지는 제반 활동과 관련된 업무의 실제적인 집행을 의미하며(Cho, 2003), 병원의 생산성과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보고되고 있다(Northcott, 1997).

전문직업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임상간호사, 전문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Kwon et al., 2009; Lee, 2010)가 있으며, 임상적 의사결정능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장부간호사와 암전문병원 간호사, 내 외과 중환자실 간호사, 보건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Baek, 2005; Choi, 1997; Jung & Jung, 2011)가 있고, 간호업무성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수간호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Park, 2004; Shin & Lee, 2000) 등이 있다.

한편, 전문간호사에 대한 연구로는 직무개발, 직무수행, 역할기대, 자율성에 대한 연구(Park, 2006; Hwang, 2009) 등

은 있지만 가장 전문성이 요하는 상급종합병원 전문간호사의 전문직업성과 임상적 의사결정 정도를 확인하여 간호업무성과를 파악한 연구는 찾아 보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대가 요구하는 상급종합병원 전문간호의 질을 향상시키며 병원 간호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간호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간호사의 전문직업성과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간호업무성과를 확인해 보고, 간호조직의 목표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간호사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전문간호사의 전문직업성, 임상적 의사결정 능력, 간호업무성과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전문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전문간호사의 전문직업성,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간호업무성과 정도를 파악한다.
- 전문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업성,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간호업무성과의 차이를 파악한다.
- 전문간호사의 전문직업성,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간호업무성과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3. 용어정의

1) 전문직업성

전문직업성이란 전문직이나 전문직인을 특징짓는 행위, 목표 또는 질을 의미한다(Baek & Kim-Godwin, 2007). 본 연구에서는 Hall (1968)이 개발한 Professionalism Inventory Scale을 Snizek (1972)이 수정한 것을 Baek과 Kim-Godwin (2007)이 한글표준화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2)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이란 간호사가 환자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문제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는 인지적 과정을 의미한다(Choi, 1997). 본 연구에서는 Jenkins (1985)가 개발한 임상적 의사결정 능력 척도를 Baek (2005)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3) 간호업무성과

간호업무성과란 간호사가 간호대상자인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함에 있어 요구되어지는 제반 활동과 관련된 업무의 실제적인 집행을 말한다(Cho, 2003). 간호업무성과 측정도구는 Kron (1981)이 제시한 과정적 간호업무 평가를 근거로 Park (1988)가 개발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전문간호사의 전문직업성,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간호업무성과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B광역시에 소재한 4개의 상급종합병원과 J시에 1개의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전문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필요한 표본크기는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원분산분석에서 사용될 통계적 검정법에 따라 결정하였다. 유의수준(α) .05, 검정력(1- β) 80%, 효과의 크기(f_2)를 중간크기인 .32로 산출했을 때 본 연구의 적정 표본크기는 115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150부를 배부하여 응답이 미비한 15부를 제외한 135부(회수율 90%)를 최종 연구자료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방법은 부산대학교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접수번호 E-2013006)의 승인을 받고 해당 병원 간호부에 연구계획서와 함께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자료수집 의뢰를 신청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제한된 설문지 부수를 요청하여 편의추출하였다. 연구자나 간호부 해당 책임자가 연구목적에 맞는 대상자를 만나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서에서 명을 얻은 후 설문지를 주어 직접 작성하도록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작성된 설문지는 회수용 봉투에 넣어 연구자가 직접 회수 또는 우편으로 회수받았다.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설문지 첫 페이지에 연구참여 동의서를 첨부하였다.

3. 연구도구

1) 전문직업성

전문직업성 측정도구는 Hall (1968)이 개발한 Professionalism Inventory Scale을 Snizek (1972)이 수정한 것을 Baek

과 Kim-Godwin (2007)이 한글표준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5개 문항으로 전문조직의 준거성 5개 문항,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념 5개 문항, 자율성 5개 문항, 자체규제에 대한 신념 5개 문항,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5개 문항으로 5개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이며, 측정범위는 최소 25점에서 최고 10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업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Baek과 Kim-Godwin (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82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69였다.

2)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측정도구는 Jenkins (1985)가 개발한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척도 Baek (2005)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40개 문항으로 결론에 대한 평가와 재평가 10개 문항, 가치와 목표에 대한 평가 10개 문항, 정보에 대한 조사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일치화 10개 문항, 대안과 선택에 대한 조사 10개 문항으로 4개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이며, 측정범위는 최소 40점에서 최고 20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에는 Cronbach's α = .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76이었다.

3) 간호업무성과

간호업무성과 측정도구는 Kron (1981)이 제시한 과정적 간호업무 평가를 근거로 Park (1988)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3개 문항으로 독자적 간호업무 9개 문항, 비독자적 간호업무 11개 문항, 대인관계 업무 3개 문항으로 3개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이며, 측정범위는 최소 23점에서 최고 115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업무 수행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에는 Cronbach's α = .9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94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

수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대상자가 지각하는 전문직업성,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간호업무성과 정도는 평균, 평균평점,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업성,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간호업무성과의 차이는 ANOVA,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으며, 전문간호사의 전문직업성,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간호업무성과 간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연령은 30~39세와 40~49세가 각각 40.7%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상태는 기혼이 73.3%로 미혼 26.7%보다 많았다. 종교는 있는 경우가 57.8%였고, 학력은 대학원 졸업한 경우가 88.1%로 가장 많았다. 근무부서는 특수부서가 28.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내과 17.8%, 외래 17.0%, 외과 15.6%였다. 전문간호사의 종류는 노인전문간호사가 38.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가정전문간호사 25.2%, 중앙전문간호사 14.1%, 중환자전문간호사 9.6%였다. 총 임상경력은 15년 이상이 63.7%로 가장 많았고 10~15년 미만이 28.9%, 5~10년 미만이 5.2% 순이었다. 전문간호사 경력은 5년 미만이 55.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5~10년 미만이 32.6%, 10~15년 미만이 8.1%, 15년 이상이 3.7%였다. 월평균수입은 250~300만원 미만이 25.9%로 가장 많았고 300~350만원 미만이 21.5%, 450만원 이상이 20.7% 순이었다(Table 1).

2. 대상자의 전문직업성, 임상적 의사결정능력과 간호업무 성과 정도

대상자의 전문직업성 정도는 평균이 81.19±7.56(도구범위: 25~100), 평균평점이 4.05±0.37(척도범위: 1~5)이었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18.08±2.5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율성이 16.72±2.60,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념이 16.45±2.26, 자체규제에 대한 신념이 16.05±2.62, 전문조직의 준거성이 13.86±2.70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정도는 평균이 140.42±9.62(도구범위: 40~200), 평균평점이 3.51±0.24(척도범위: 1~5)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치와 목표에 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3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Age (year)	20~29	3 (2.2)
	30~39	55 (40.7)
	40~49	55 (40.7)
	≥ 50	22 (16.3)
Marital status	Married	99 (73.3)
	Unmarried	36 (26.7)
Religion	Yes	78 (57.8)
	No	57 (42.2)
Educational background	College	3 (2.2)
	University	13 (9.6)
	≥ Master's degree	119 (88.1)
Work area	Medical unit	25 (18.5)
	Surgical unit	24 (17.8)
	OBGY or pediatric unit	4 (3.0)
	Special Unit	39 (28.9)
	OPD	34 (25.2)
	Others	9 (6.7)
	Type of APN	Public health, psychiatric mental health
Anesthetic		5 (3.7)
Home healthcare		34 (25.2)
Infection management		3 (2.2)
Emergency		4 (3.0)
Geriatric		52 (38.5)
Critical care		13 (9.6)
Hospice		2 (1.5)
Oncology		19 (14.1)
Clinical career (year)		17.74±6.86
	< 5	3 (2.2)
	5~10	7 (5.2)
	10~15	39 (28.9)
	≥ 15	86 (63.7)
Career lengths of APN (year)	4.58±3.57	
	< 5	75 (55.6)
	5~10	44 (32.6)
	10~15	11 (8.1)
	≥ 15	5 (3.7)
Monthly income (10,000 won)	< 250	16 (11.9)
	250~300	35 (25.9)
	300~350	29 (21.5)
	350~400	14 (10.4)
	400~450	13 (9.6)
	≥ 450	28 (20.7)

OBGY=Obstetrics and gynecology; OPD=Out-patient department; APN=Advanced practice nurse.

한 평가는 36.6±3.5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결론에 대한 평가와 재평가는 36.53±3.90, 정보에 대한 조사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일치화는 35.48±2.89, 대안과 선택에 대한 조사는 31.77±2.12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 정도는 평균이 102.54±10.30(도

구범위: 23~115), 평균평점이 4.45±0.44(척도범위: 1~5)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비독자적 간호업무는 50.71±5.1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독자적 간호업무는 37.91±5.01, 대인관계 업무는 13.91±1.39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3.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전문직업성, 임상적 의사결정 능력과 간호업무성과의 차이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전문직업성 차이는 결혼상태(F=2.27, p=.025), 전문간호사의 종류(F=2.09, p=.058)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차이는 전문간호사의 종류(F=3.09, p=.003), 근무경력(F=3.37, p=.02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성과 차이는 연령(F=6.18, p=.001), 근무경력(F=5.76,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에서는 연령에서 50세 이상이 30~40세 미만보다, 총 근무경력에서 15년 이상이 5년 미만이나 10~15년 미만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able 3).

4. 대상자의 전문직업성, 임상적 의사결정능력과 간호업무 성과 간의 관계

대상자의 전문직업성과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은 중등도의 순상관관계(r=.45,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자의 전문직업성과 간호업무성과는 중등도의 순상관관계(r=.42,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업무성과의 하부 영역인 독자적 간호업무와 전문직업성은 중등도의 순상관관계(r=.44, p<.001), 비독자적 간호업무와 전문직업성은 약한 순상관관계(r=.32, p<.001), 대인관계 업무와 전문직업성은 약한 순상관관계(r=.32,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과 간호업무성과는 중등도의 순상관관계(r=.41,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업무성과의 하부영역인 독자적 간호업무와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은 중등도의 순상관관계(r=.44, p<.001), 비독자적 간호업무와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은 약한 순상관관계(r=.32, p<.001), 대인관계 업무와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은 약한 순상관관계(r=.29,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전문간호사의 전문직업성, 임상적 의사결정능력과 간호업무성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전문간호사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전문직업성 정도는 평균이 81.19±7.56(도구범위: 25~100), 평균평점이 4.05±0.37(척도범위: 1~5)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임상간호사의 전문직업성을 연구한 Kwon 등(2009)의 연구에서 78.04점, Kim (2008)의 연구에서 77.77점, Cha (2008)의 연구에서 78.7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의료 환경의 변화와 건강 소

Table 2. Mean Scores for Nursing Professionalism, Clinical Decision Making Abilities, Job Performance (N=135)

Variables	M±SD	Instrument range	Point M±S	Scale range
Nursing professionalism (25)	81.19±7.56	25~100	4.05±0.37	1~5
Professional organization (5)	13.86±2.70	5~25	2.77±0.54	1~5
Public service (5)	16.45±2.26	5~25	3.29±0.45	1~5
Autonomy (5)	16.72±2.60	5~25	3.34±0.52	1~5
Self-regulation (5)	16.05±2.62	5~25	3.21±0.52	1~5
Sense of calling (5)	18.08±2.57	5~25	3.61±0.51	1~5
Clinical decision making abilities (40)	140.42±9.62	40~200	3.51±0.24	1~5
Evaluation and reevaluation of consequence (10)	36.53±3.90	10~40	3.65±0.39	1~5
Canvassing of values and objectives (10)	36.62±3.59	10~40	3.66±0.35	1~5
Search for information and unbiased assimilation of new information (10)	35.48±2.89	10~40	3.54±0.28	1~5
Search for alternatives or options (10)	31.77±2.12	10~40	3.17±0.21	1~5
Job Performance (23)	102.54±10.30	23~115	4.45±0.44	1~5
Dependent tasks (9)	37.91±5.01	9~45	4.21±0.55	1~5
In-dependent tasks (11)	50.71±5.16	11~55	4.61±0.46	1~5
Interpersonal relationships (3)	13.91±1.39	3~15	4.63±0.46	1~5

Table 3. Nursing Professionalism, Clinical Decision Making Abilities, Job Performa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3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ursing professionalism		Clinical decision making abilities		Job performance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Age (year)	20~<30 ^a	80.00±4.35	2.01	137.33±12.58	2.48	95.00±14.00	6.18
	30~<40 ^b	79.41±6.60	(.115)	138.01±8.96	(.064)	99.05±9.83	(.001)
	40~<50 ^c	82.12±7.94		141.72±9.20		104.01±10.50	b<d
	≥50 ^d	83.45±8.51		143.63±10.93		108.59±6.47	
Marital status	Married	82.07±7.43	2.27	141.14±9.63	1.43	103.53±9.66	1.87
	Unmarried	78.77±7.46	(.025)	138.47±9.45	(.155)	99.80±11.59	(.063)
Religion	Yes	81.16±8.01	-0.04	140.92±9.30	0.69	103.26±10.59	0.96
	No	81.22±6.96	(.963)	139.75±10.08	(.488)	101.54±9.89	(.338)
Educational background	College	83.66±7.50	0.67	135.33±9.81	0.46	99.00±8.66	0.51
	Bachelor	83.15±9.50	(.511)	141.23±11.60	(.630)	104.84±8.94	(.599)
	Master's degree	119.80±7.35		140.47±9.43		102.37±10.49	
Work area	Medical unit	82.75±7.12	1.01	138.80±8.95	0.24	103.36±10.62	0.92
	Surgical unit	81.84±7.02	(.413)	140.04±10.71	(.940)	100.20±11.11	(.469)
	OBGY or pediatric unit	80.08±9.07		141.50±12.06		111.75±2.50	
	Special Unit	74.00±11.57		141.33±11.47		102.76±9.29	
	OPD	82.20±6.57		140.91±7.27		102.29±10.86	
	The others	81.05±7.25		139.77±8.15		102.33±11.06	
Type of APN	Public health, psychiatric mental health	89.00±3.60	2.69	146.66±16.25	3.09	104.00±11.00	1.55
	Anesthetic	72.40±5.36	(.009)	134.80±12.15	(.003)	99.80±15.38	(.145)
	Home healthcare	83.79±8.82		144.00±9.60		105.82±10.10	
	Infection management	87.66±6.02		140.66±3.51		94.00±17.43	
	Emergency	76.25±4.27		141.25±6.60		100.75±9.70	
	Geriatric	80.75±7.12		141.75±8.51		103.75±9.56	
	Critical care	78.76±5.61		131.92±8.13		99.84±9.76	
	Hospice	81.00±4.24		133.00±1.41		100.50±10.60	
	Oncology	80.52±6.33		137.31±9.29		97.63±9.35	
Clinical career (year)	<5 ^a	75.66±6.02	2.31	133.00±7.93	3.37	87.33±2.08	5.76
	5~10 ^b	77.85±5.42	(.079)	135.00±4.69	(.020)	104.57±9.94	(.001)
	10~15 ^c	79.61±7.19		137.97±9.75		98.74±9.54	a, c<d
	≥15 ^d	82.37±7.71		142.24±9.48		104.62±10.00	
Career of APN (year)	<5	80.80±7.33	2.18	139.62±9.41	1.39	102.14±10.51	0.38
	5~10	80.95±8.20	(.092)	140.84±10.30	(.248)	102.27±10.96	(.765)
	10~15	86.36±6.26		145.54±9.05		105.36±8.20	
	≥15	77.80±2.28		137.60±4.66		104.60±4.15	
Monthly income (10,000 won)	<250	77.25±5.43	1.44	137.62±9.68	0.81	97.12±10.64	1.84
	250~300	82.05±9.04	(.213)	139.37±9.86	(.544)	102.40±10.28	(.109)
	300~350	80.34±7.94		142.82±10.34		101.03±11.19	
	350~400	83.57±6.51		139.14±7.43		103.92±7.74	
	400~450	80.84±3.55		141.38±10.07		103.61±8.78	
	≥450	82.21±7.60		141.07±9.38		106.17±10.11	

OBGY=Obstetrics and gynecology; OPD=Out-patient department; APN=Advanced practice nurse.

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전문간호사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전문간호사의 전문직업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간호사의 전문직업성을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였으므로 향후 연구에는 전문간호사의 전문직업성을 측정하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문직업성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18.08±2.57(척도범위: 1~5), 자율성이 16.72±2.60(척도범위: 1~5),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념이 16.45±2.26(척도범위: 1~5), 자체규제에 대한 신념이 16.05±2.62(척도범위: 1~5), 전문조직의 준거성이 13.86±2.70(척도범위: 1~5)의

Table 4. Correlation of Nursing Professionalism, Clinical Decision Making Abilities, Job Performance

(N=135)

Variable	Nursing professionalism	Clinical decision making abilities	Job performance
	r (p)	r (p)	r (p)
Nursing professionalism	1		
Clinical decision making abilities	.45 (< .001)	1	
Job Performance	.42 (< .001)	.41 (< .001)	1
Independent tasks	.44 (< .001)	.44 (< .001)	
Non-independent tasks	.32 (< .001)	.32 (< .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s	.32 (< .001)	.29 (< .0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im (2008)의 연구에서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가장 높고, 전문조직의 준거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Kwon 등(2009)과 Cha (2008)의 연구에서 자체규제에 대한 신념이 가장 높고, 전문조직의 준거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 연구결과 간에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결혼상태, 근무부서, 임상경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전문간호사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문간호사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정도는 평균이 140.42 ± 9.62(도구범위: 40~200), 평균평점이 3.51 ± 0.24(척도범위: 1~5)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장루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Baek (2005)의 연구에서 137.57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전문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 (2006)의 연구에서 142.37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Baek (2005)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장루간호사 임상경력이 2년 9개월로, Park (2006)의 연구에서는 전문간호사 근무 경력이 4년 3개월로, 본 연구의 전문간호사 근무경력은 4년 2개월로 나타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은 근무경력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임상 환경에서 의사결정을 경험하게 되어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치와 목표에 대한 평가는 36.62 ± 3.59(척도범위: 1~5), 결론에 대한 평가와 재평가는 36.53 ± 3.90(척도범위: 1~5), 정보에 대한 조사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일치화는 35.48 ± 2.89(척도범위: 1~5), 대안과 선택에 대한 조사는 31.77 ± 2.12(척도범위: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루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Baek (2005)의 연구에서 ‘결론에 대한 평가와 재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치와 목표에 대한 평가’, ‘정보에 대한 조사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일치화’, ‘대안과 선택에 대한 조사’ 순으로 나타났고,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 (2006)의 연구에서 ‘결론에

대한 평가와 재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보에 대한 조사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일치화’, ‘가치와 목표에 대한 평가’, ‘대안과 선택에 대한 조사’ 순으로 타나났다. 세 연구를 비교해 볼 때 공통적으로 임상적 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 대안들을 찾아보고 선택하는 능력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전문간호사들이 대안을 찾아보고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 정도는 평균 102.54 ± 10.30(도구범위: 23~115), 평균평점 4.45 ± 0.44(척도범위: 1~5)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Song (2012)의 연구에서 간호업무성과 정도는 평균평점 3.58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ong (2012)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총 근무경력 10년 미만이 60.8%였고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총 근무경력은 10년 미만이 7.4%로 나타나 간호업무성과는 근무경력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독자적 간호업무는 4.21, 비독자적 간호업무는 4.61, 대인관계업무는 4.63(척도범위: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Song (2012)의 연구에서 독자적 업무 3.35점, 비독자적 업무 3.73점, 대인관계 업무 3.7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병원 환경에서 의료인과 협력하는 업무와 환자를 직접적으로 대하는 대인관계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로 생각된다. 또한 현재 2006년 이후 전문간호사들이 배출되었으나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간호사들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현재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전문간호사의 필요한 분야를 찾고, 전문간호사의 배치, 직위, 급여를 제도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가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전문간호사를 활용하는 각 기관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전문직업성은 결혼상태, 전문간

호사의 종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ha (2008)의 연구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전문직업성이 높았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혼인 경우가 연령과 근무경력이 많으며 이로 인하여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전문성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간호사의 제 특성에 따른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은 전문간호사의 종류, 근무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루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Baek (2005)의 연구결과와 전문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 (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근무경력이 높아질수록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전문간호사의 종류에 따른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에 대해서는 향후 반복연구를 통해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문간호사의 제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성과는 연령, 근무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집단별 사후 분석한 결과 연령에서 50세 이상이 30~40세 미만보다, 총 근무경력에서 15년 이상이 5년 미만이나 10~15년 미만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Song (2012)의 연구에서 연령에서 40세 이상이 40세 미만보다,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이 10년 미만보다 간호업무성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도구의 하위영역들이 독자적 간호업무, 비독자적 간호업무, 대인관계 간호업무에 대한 것으로 나이와 경력이 늘어나면서 간호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향상되어 간호업무성고가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전문간호사의 전문직업성과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의 관계는 중등도의 순상관관계($r=.45, p<.001$)가 있었다. 즉, 대상자의 전문직업성이 높을수록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이 높았다. 이는 동일한 개념을 연구한 결과는 없었으나 비슷한 개념으로 전문직 자율성을 연구한 논문을 비교해 볼 때 Park (2006)의 연구에서 전문직 자율성이 높을수록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이 높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전문직업성의 하위영역인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율성을 발휘하게 되면서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전문간호사의 전문직업성이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전문간호사의 전문직업성과 간호업무성과의 관계는 중등도의 순상관관계($r=.42, p<.001$)가 있었다. 즉, 대상자의 전문직업성이 높을수록 간호업무성고는 높았다. 이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Shin (2009)의 연구에서 전문직업성이 높을수록 간호업무수행이 높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전문직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전문직업

성이 향상되면서 간호업무성고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전문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업무성고를 높여주기 위해 전문직업성을 증진시켜주는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간호사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과 간호업무성과의 관계는 중등도의 순상관관계($r=.42, p<.001$)가 있었다. 즉, 대상자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이 높을수록 간호업무성고가 높았다. 이는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No (2010)의 연구에서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이 높을수록 간호업무수행이 높다고 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임상 현장에서 올바르게 신속한 의사결정은 간호함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므로 전문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업무성고를 높여주기 위한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전문간호사의 전문직업성,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간호업무성고는 높은 정도였다. 또한 전문간호사의 전문직업성이 높을수록,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이 높을수록 간호업무성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고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직업성을 높여주고 임상적 의사결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론

본 연구는 전문간호사의 전문직업성,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간호업무성고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로 2013년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B광역시에 소재한 4개의 상급종합병원과 J시 1개의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전문간호사 1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본 연구결과 전문간호사의 전문직업성,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간호업무성고가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문간호사의 전문직업성이 높을수록,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이 높을수록 간호업무성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고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직업성을 높여주고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문직업성,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반복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전문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Baek, H. C., & Kim-Godwin, Y. S. (2007). Translation and validation of Korean version of Hall's professionalism inventor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3*, 509-515.
- Baek, M. K. (2005). *Relationship between level of autonomy and clinical decision-making in nursing scale of E.T. nur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Cha, I. J. (2008). *Clinical nurses'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 commi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Cheong, H. J. (2009). *Legal responsibilities of nurse practition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Cho, K. H. (2003). *Influence of self-leadership about job-satisfaction and outcome of nursing pract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Cho, M. K., Cho, Y. A., Kwon, I. G., Seo, M. J., & Baek, H. J. (2011). Importance, satisfaction and contribution of advanced practice nurses' role recognized by health care profession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7*, 168-179. <http://dx.doi.org/10.11111/jkana.2011.17.2.168>
- Choi, H. J. (1997). *A study on nurse's decision making process and related factors for patient ca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Choo, H. S. (2011). *A study on clinical nurses's professionalism and the factors affecting it*.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Davis, B., & Hughes, A. M. (1995). Clarification of advanced nursing practice: Characteristics and competencies. *Clinical Nurse Specialist, 16*, 147-152.
- Hall, R. H. (1968). Professionalism and bureaucratiz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3*, 92-104. <http://dx.doi.org/10.2307/2092242>
- Hwang, H. Y. (2009). *The development job standards for advanced health insurance review nurs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Jenkins, H. M. (1985). A research tool for measuring perceptions of clinical decision making consistency.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13*, 189-197.
- Jung, S. C., & Jung, D. Y. (2011).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decision making and job satisfaction of cancer center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7*, 443-450. <http://dx.doi.org/10.11111/jkana.2011.17.4.443>
- Kim, M. R. (2008). *Clinical nurses' professionalism, nursing performance and intention of reten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Kim, Y. H., & Moon, H. J. (2004). *Major issues in contemporary nursing (top)*. Kyung Hee University Publication Station
- Kron, T. (1981). *The management of patient care*. Philadelphia: Saunders.
- Kwon, K. J., Chu, M. S., & Kim, J. A. (2009). The impact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nursing performance, job satisfaction and retention intention among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5*, 182-192.
- Lee, J. W. (2010). Effect of nurse's professionalism on customer orientation, job satisfaction and service delivery level in specialty hospital.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1*(11), 266-276. <http://dx.doi.org/10.5392/JKCA.2011.11.1.266>
- Lee, K. J., Byeon, Y. S., Kim, S. S., Kim, M. S., Lee, K. H., Lee, J. H., et al. (2003). New scheme for the graduate school of nursing. *Nursing Science, 15*(1), 40-49.
- Moon, K. H. (2004). *A study on restructuring to a patient-oriented primary care team model*.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No, Y. S. (2010). *Relationship of clinical decision making abilities and nursing performance of emergency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Korea.
- Northcott, N. (1997). Reflection on performance. *Nursing Times, 93*(26), 49-52.
- Orme, L., & Maggs, C. (1993). Decision-making in clinical decision making of staff nurses. *Journal of Nurse Education Today, 13*, 270-276.
- Park, J. H. (2004). *Study on empowerment level, job stress and nursing work perform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M. S. (2006). *The level of professional autonomy and clinical decision making abilities of advanced practice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Ulsan, Korea.
- Park, S. A. (1988). An exploratory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hip style and performance in Korean nursing units. *The Seoul Journal of Nursing, 4*, 45-61.
- Shin, H. S. (200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ism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clinic nurses: Focus on job performance, organization commitment & career commi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Shin, Y. J., & Lee, B. S. (2000). The influence of leadership of head nurses on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of staff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6*, 405-418.
- Snizek, W. E. (1972). Hall's professionalism scale: An empirical reassess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7*, 109-114. <http://dx.doi.org/10.2307/2093498>
- Song, H. S. (2012). *A study on the empowerment and job satisfaction, job performance in hospit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osuk University, Wanju, Korea.